

**종합·해설**

# 민주 당권 물밑경쟁 치열

### 한나라 지도부 40~50대 세대교체 영향 속 박지원·박주선·이강래·김효석 등 도전장 수도권·비주류·486대표 주자들도 출마 재비

한나라당의 전당대회가 끝나자 민주당 내에서도 차기 당권을 향한 물밑 경쟁이 시동을 거는 듯한 분위기다. 당내에서는 홍준표 대표의 선출과 40~50대로의 세대교체를 특징으로 하는 한나라당 전당대회 결과가 민주당의 전당대회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 속에 당권주자들은 서서히 출전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현재 호남 출신으로는 직전 원내대표인 박지원 의원과 박주선 최고위원, 원내대표를 지낸 이강래 의원이 당 대표 도전 결심을 굳힌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전남의 3선인 김효석 의원이 당 대표권과 대권 도전 중 어느 것을 선택할지 고민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수도권에서는 3선의 김부겸 의원이 당권 도전 재비를 마쳤으며 같은 3선인 이종걸 의원이 비주류 대표주자를 지임, 대표 출마를 준비 중이다. 486그룹에선 이인영 최고위원의

출범시킨다는 계획이다. 국내외를 아우르는 대규모 조직인 이 동북아위원회는 출범에 앞서 오는 7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21세기 동북아 평화번영전략 한·중·일 국제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이들 호남 출신 주자들은 총·대선 승리를 통해 정권교체를 이루려면 중랑강·경륜을 갖춘 인사가 대표를 맡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당 안팎에선 한나라당 지도부가 한층 젊어진다 수도권 중심으로 채워지면서 민주당에도 비슷한 변화가 이뤄질 것으로 보고 마음준비에 나선 후보들이 늘고 있다.

순환규 대표계의 김 의원은 '김부겸의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이달 초 전국순회에 들어간 데 이어 오는 21일 전대준비 조직을 띄울 예정이다.

486 대표주자로, 당 아권통합특위 위원장인 이 최고위원은 "당간통합에 매진하겠다"고 말을 아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크호스'로 부상하는 분위기다. 물론 한나라당에서 40대가 대표가 되지 않아 다소 힘이 빠졌지만 호남 출신들에게 가장 위협적인 존재로 평가된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친이계 초·재선 소장파 의원모임인 민생토론포에 적은 수의 의원들이 참석해 썰렁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이날 모임은 전날 전당대회 대표경선에서 친이계가 참패해서 인지 2~3주 전 모임과는 다르게 참석 의원이 10명도 안 돼 대조를 이뤘다. 위로부터 민생토론포 5일, 6월 21일, 6월 14일 모임. /\*연필뉴스

## '홍준표號' 한나라 19대 총선 '공천태풍' 불까

한나라당의 7·4 전당대회에서 비주류인 홍준표 의원이 대표가 되면서 내년 총선 공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홍 대표는 우선 계파의 영향력에서 자유롭기 때문에 어느 누구보다도 '물같이 공천'을 시도하기 쉬운 위치에 있다는 것이 일반적 분석이다. 또 홍 대표는 밀어붙이는 힘도 누구보다 강하다는 평을 받고 있어 공천 혁명을 시도할 가능성이 크다는 예상이다.

벌써 홍 대표와 친박(박근혜)계 대표주자로 출현해 2위를 차지한 유승민 최고위원 모두 물같이 공천을 시사하는 발언을 한 바 있다.

홍 대표는 5일 흑석동 국립현충원 참배에 앞서 신임 최고위원들과 가진 약식 간담회에서 "앞으로 계파활동을 하면 공천을 안 줄 것"이라며 계파 해체를 위해 당 대표의 공천권한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그는 또 "공천은 내년 설 전에 하면 된다"며 3대 공천원칙으로 ▲상향식 공천 ▲개혁 공천 ▲이기는 공천을 제시했다.

유승민 최고위원도 전당대회 전 인터뷰에서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 대대적 물갈이가 필요하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인재영입을 대폭 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홍 대표와 유 최고위원은 모두 상향식 공천개혁의 원칙에는 공감하나 현역 의원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전면적인 국민경선제를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 최고위원은 "솔직히 왜 현역의 원들이 상향식 공천에 그렇게 찬성하겠느냐. 그 경선방식으로 하는 게 현역이 이기기 제일 쉽다고 보고 찬성하는 것 아니겠느냐"며 "내년 총선에서 현역이 대부분 공천되면 수도권 이권, 영남권이건 충청권이건 총선을 치르겠느냐. 박근혜 전 대표와 김문수 지사 다 뛰어다녀도 총선을 못 치른다"고 말했다.

홍 대표도 지난달 20일 당 대표 출마선언을 하면서 "국민이 수긍하는 인사들을 전면내내 세우겠다"며 공천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더욱이 현 지도부가 어느 때보다 젊게 구성된 것도 물갈이 공천의 전조를 보는 듯하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홍 대표가 회의에서 "당 역사상 가장 젊은 지도부로 당이 젊어졌다"고 강조한 것도 이를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된다.

물론 당 공천 개혁이 물 흐르듯 쉽게 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벌써 홍 대표의 '계파 배제' 발언을 놓고 신경전을 벌여왔다.

최고위원회의 직전 유승민 최고위원은 기자들과 만나 "친이, 친박 활동을 한다고 공천에 불이익을 준다는 데 동의할 수 없다"면서 "그러면 내부에서 공천이 안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82세 권노갑 만학도 되다

#### 한국외국어대 대학원 '2011학번' 입학

동교동계의 말형 민주당 권노갑(82·사진) 전 상임고문이 한국외국어대 영문학과 대학원에 '2011학번'으로 입학하며 만학도의 길을 걷게 됐다. 그는 일반전형으로 응시해 당당하게 시험에 합격, 오는 2학기부터 손자뻘 되는 다른 학생들과 정식으로 대학원 공부를 시작한다.

권 전 고문의 영어외의 인연은 60년부터 시작했다. 그는 6·25 한국전쟁 당시 유엔군 통역관으로 복무했고 1963년 김대중(DJ) 전 대통령의 비서로 정계에 입문하기 전에는 고창인 북포로교섭에 영어교사로 3년 동안 재직했다.

또 정계 입문 이후에도 단 한 번도 영어책을 놓지 않았다고 측근들은 전하고 있다.

그는 정계에서 은퇴한 이후 본격적으로 영어공부에 나섰다. 지난 2007년 3월에는 강남역에 위치한 동시통역 어학원에 등록해 6개월 동안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수업을 들었으며 2009년 2월에는 미국 하와이대로 어학과정 을 마쳤다.

당시 권 전 고문은 1년 과정으로 입학했지만 김대중 전 대통령의 서거로 6개월 만에 중도하차하고 돌아왔다. 그는 또 영문학계의 원로인 이창배 동국대 영문과 명예교수에게 개인교습을 받으며 '남만주의 영사'를 배운 것으로 전해졌다. 권 전 고문은 "배우고 익히는 것이 즐거움이다. 그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으로 전환을" 민주 특위 토론회

민주당 비정규직특별위원회와 당내 싱크탱크인 민주정책연구원은 5일 국회도서관에서 '비정규직 문제 해결방안' 토론회를 열어 공공부문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날 정책대안을 발표하며 개혁을 전면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방안은 ▲중앙정부에 비정규직대책위와 공공부문개혁대책위 신설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 ▲대기업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권고와 규제 강화 ▲정규직 전환 특별법 제정을 통한 중소기업 지원 등이다.

주승용 정책위 수석부위원장은 "노동시장의 공공서비스를 민간위탁하는 것은 예산절감 효과도 없고 서비스 질만 하락시키는 만큼 지자체가 직접 서비스를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친이계 다들 어디갔지

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친이계 초·재선 소장파 의원모임인 민생토론포에 적은 수의 의원들이 참석해 썰렁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이날 모임은 전날 전당대회 대표경선에서 친이계가 참패해서 인지 2~3주 전 모임과는 다르게 참석 의원이 10명도 안 돼 대조를 이뤘다. 위로부터 민생토론포 5일, 6월 21일, 6월 14일 모임. /\*연필뉴스

## 허탈해진 親李 조심스런 親朴

원희룡 후보 4위 그쳐...내부 결속력 급속 와해

한나라당 구주류인 친이(친이명박)계가 무기력함을 느끼며 허탈감에 빠졌다. 전당대회에서 지원을 한 원희룡 후보가 4위라는 저조한 성적을 거둔데 반해 친박(친박근혜)계 유승민 후보는 예상 밖의 2위를 차지했기 때문이다.

지난달 원내대표 선거에 이어 이번 전대에서도 친이계 '친이계 후보'가 의문을 받아 내부 결속력이 급속도로 와해하는 분위기다.

한 친이계 의원은 5일 "친이계는 이제 한나라당(史)에서 사라지는 존재"라며 "이제 친이·친박 구분을 없애겠다"고 허탈해 했다.

이날 의원회관에서 열린 친이계 초·재선 소장파 모임인 '민생토론포' 회의에서도 패배의 충격을 받은 듯한 발언이 이어졌다.

민생토론포장 간사인 진영 의원은 "이명박 정부의 역사적 의미가 무엇인지 생각하니 허탈하다"면서 "지난 원내대표 선거 끝나고 바로 친이가 사라진 게 느껴지는데"라고 말했다.

새 지도부가 정외대와의 차별성에 방점을 두면서 당·청 간 갈등이 심화할 것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았다.

한나라당 7·4 전당대회에서 가장 큰 승리를 한 것으로 평가받는 친박(친박근혜)계의 행보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친박계는 약체로 예상되던 유승민 최고위원을 2위로 만들었을 뿐 아니라 결집된 힘으로 2순위 표를 홍준표 대표 측에 몰아주기도 해 당내 최대 계파로 도약했다는 평가다.

남경필 최고위원은 5일 한 라디오 방송과 인터뷰에서 "힘의 균형이 친이(친이명박) 쪽에서 친박 쪽으로 넘어갔다는 표현이 적절할 것"이라며 "이는 박근혜 전 대표의 미래권력 가능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자연스러운 일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때문에 당을 장악하고 활발한 활동을 할 것이라 관측도 있지만 당분간은 조심스러운 결집을 취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당 일각에서 '너무 나간 것 아니냐'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친박계에서는 박 전 대표를 중심으로 한 권력지형의 변화를 낚는 자세로 맞아야 한다는 말들이 이어졌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대인동삼일부동산

좋은 자리에 상가 건물을 싸게 사실분

상가 전문소개업체인 저희 부동산으로 오십시오.

광주시내 전지역 상가중 점포가 잘 형성되어 월세가 다 른지역보다 더 많이 나오고 앞으로 더욱 좋아질 비전있는 곳으로 1층 점포가 4~5칸 정도에 점포가 여러칸인 상가를 대표적인것만 골라 물건을 많이 확보하고 있어 일일이 광고하지 못합니다.

사장님께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실 때에는 상가전문 소개업체인광주에서 오랜전통 있는 저희 부동산에 꼭 한번 방문 하시면 책임지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FAX)223-1772 (H)011-602-2532 (광주영흥 신본점, 대인동 소방사건너편)

### 신진공인중개사(임대전문)

**광산구 도천동 자연복지 매매**

- ▶신월IC 교통광장 집 코너
- ▶면적:700평,1350평 분할가 광고효과 최고!!
- ▶매매가격: 협의후 결정

**화순 북면 수련원,요양원,기도원 부지 매매**

- ▶임야:47000평, 단층건물:250평 (5동)
- ▶단지내 도로개설됨 소나무, 산악초 재배단지
- ▶매매가격: 협의후 결정

**북구 신안동 토지매매(상업지역)**

- ▶대 지: 250평(30×8코너)
- ▶가로32m, 세로26m (분할가능)
- ▶급 매: 매매가격 협의후 결정

**북구 동림동 공장(창고)급매**

- ▶대 지: 538평, 680평, 1000평
- ▶건 물: 300평, 200평, 200평
- ▶높 이: 8.9, 10.9m
- ▶호이스트: 유, 유, 유
- ▶매매가격: 협의후결정

문의: ☎ 016-644-4265, FAX.523-8558

### 나라공인중개사

**펜션텔 매도**

전북순창군 북흥면 대방리 펜션텔 2007년 준공

- 대 지: 10980㎡, 임야: 13937㎡
- 케모마일 23형형 3개동, 케모마일10형형17개동 관리동1,각각 독채형식 주차장완비, 수려한경치,수련원,기도원적합 여유대지대용,계곡있음
- 매매가: 13억(근저당2억9천만원) • 실투자금: 11억1천

**모텔매도**

전라남도 여수시 읍산면 월산리 • 대지: 1038㎡, 건물1096㎡

- 지하1층지상4층 객실: 29개 엘리베이터 있음 월촌산단입구 2012 여수세계박람회 숙박업 지정업소
- 매매가: 10억(근저당3억6천대출송계가능) • 실투자금: 6억4천

**토지매매**

광주광역시 북구 문흥동 한국아메리카우문부근 코너

- 대 지: 262㎡ 제2종일반주거지역 원룸,빌라,점포형주택 적합
- 매매가: 1억5천만

**토지매매**

광주광역시 북구 월출동 북광주IC 부근 생산녹지

- 대 지: 1425㎡ 투지적합 도로있음 영산강변 경치좋은
- 매매가: 2억2천5백만

**토지매매**

광주광역시 북구 일곡동 일동초교부근

- 대 지: 210㎡ 제2종일반주거지역 코너 원룸,빌라 적합
- 매매가: 1억3천만

**과수원매매**

전라남도 곡성군 목사동면 신전리

- 전,답: 9150㎡ 계획관리지역 배나무 15~20년생 2000주이상 지대가 높고 과일당도 아주 좋음
- 매매가: 1억3천5백만

**토지매매**

전라남도 담양군 무정면 평지리

- 공장용지및잡종지: 8480㎡ 공장부지: 3192㎡의 잡종지 담양목과방면2차선 도로옆 4차선도로 계획있음
- 매매가: 6억4천만

**대표전화 ☎511-6633**  
핸드폰: 010-6522-7731 FAX: 512-4589

## 옥상·외벽·내벽·주택 방수

### 전·문·방·수

기술 필요없이 누구나 직접 방수를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쉽게 붓이나 롤러로 직접 칠해주세요"

품질경영시스템인증 9001, 2001인증

ENG, 이앤지 방수, 바닥 전문생산업체

**이앤지 특수 방수 주** ☎ 062-367-7755

광주광역시 서구 농성동 660-29

- 옥상 지붕이 새는 건물
- 외벽, 내벽, 지하실, 화장실
- 바닥이 오래되어 모래가 일어나는 옥상 및 바닥
- 정마칠 누수 및 습기찬 곳
- 옥상방수 하자에 지치신 분
- 낡은 옥상을 새 옥상으로 만들어 줍니다.

- 가격이 저렴하여, 시공면을 깨끗이 물 청소하시고 로리로 직접 칠해 주세요.  
- 고침투성, 무독성 제품으로 건물의 수명을 연장시켜 줍니다.  
- 물이나 습기가 있는 곳도 공사할 수 있습니다.  
- 한번 시공으로 반영구적이다.

역사와 전통의 **미화표** 를 꼭 확인하세요...